

내가 앉은 자리

허 창 렬

아침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굳어진 습관대로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가볍게 아침체조를 하고 시내중심에 자리잡고있는 민속공원까지 걸어서 갔다오는 나의 새벽산보는 하루를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즐거운 사색의 시간이다.

청신한 새벽대기의 고요속에 잠긴 민속공원에 들어서니 2월의 명절을 앞두고 활짝 피어난 서리꽃으로 곱게 단장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서로 어울려 깊은 정서를 자아내고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하늘은 점차 선명해졌다. 마치 한폭의 그림을 보는것만 같았다.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을 뜨겁게 울려주는 감명깊은 노래였다.

한평생 우리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눈물겹게 안겨오는 노래에 나는 저도 모르게 잠겨버렸다.

나의 눈앞에는 며칠전 출장으로 평양에 갔다가 휴식일에 있었던 잊을수 없는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그날 동무들과 함께 대동문영화관으로 간 나는 표에 찍혀진 좌석번호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웬일인지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30대의 여성이 웃음을 담고 다가오는것이였다. 그는 영문을 몰라하는 나에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안녕하십니까? 영화관안내원입니다. 손님이 앉은 그 자리 주체97(2008)년 6월 5일 새로 개건된 우리 대동문영화관을 돌아보시려고 나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안내원의 너무도 뜻밖의 말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옆의 사람들도 놀란 눈으로 안내원을 쳐다보았다. 안내원은 그러는 우리를 보며 가슴 뜨거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그날 관람석에 들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자리에 몸소 앉으시여 등을 기대보기도 하시고 의자의 색깔도 주의깊게 살펴보기도 하시면서 의자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리에 앉으신채 영화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우리 대동문영화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수십여 차의 현지도와 교시를 받는 영광을 지닌 영화관입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그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된 손님을 축하합니다.》
아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전설을 가슴

뜨겁게 이야기하는 안내원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고 그를 마주보는 나의 두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이였다.

《안내원동무, 고맙습니다.》

이어 영화가 시작되였으나 나의 눈앞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만이 안겨올뿐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내가 앉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마냥 높뛰였다.

나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내가 앉은 의자를 더듬으며 만져보았다. 너무도 평범한 나무의자였다.

이 의자에 우리 장군님께서 앉으셨단 말인가... 정녕 생각도 깊어진다.

선경의 새 집에 들리시여도 인민들 좋아하는가, 사랑의 공원을 찾으시여도 인민들 기뻐하는가, 그 어데를 가시여도 누구를 만나시여도 언제나 인민부터 찾고 인민부터 생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인민들보다 먼저 이 평범한 나무의자에 앉아보신것이 아니신가.

우리 장군님께서 앉으셨던 자리, 그것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불같이 살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셨던 인민사랑의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은 새로 일떠선 극장의 평범한 좌석에도, 현대적인 유원지의 유희기구에도, 새형의 지하철동차며 무궤도전차의 좌석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들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들이 앉아 만복을 누리며 인민사랑의 그 이야기를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있는 나의 가슴속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억척의 맹세가 산악처럼 솟구쳤고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격조높이 울리는 노래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승엄한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네

새벽산보길에서 돌아온 나는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으며 아침출근길에 올랐다.